



##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2014.09.25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독일 킴카우어, 프랑스 소낭트 등과 같이 법정화폐와 교환되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레츠(LETS)와 같은 소규모 대안 공동체 내에서의 품앗이 교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sup>1)</sup>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한밭레츠이다. 한밭레츠는 2000년에 출범하여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68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지역화폐 사례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약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레츠와 같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올해 국내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화폐 실험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레츠와는 다른 방식이다. 수원에서는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한 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화폐가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sup>2)</sup>, 강원도 역시 수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결제, 전자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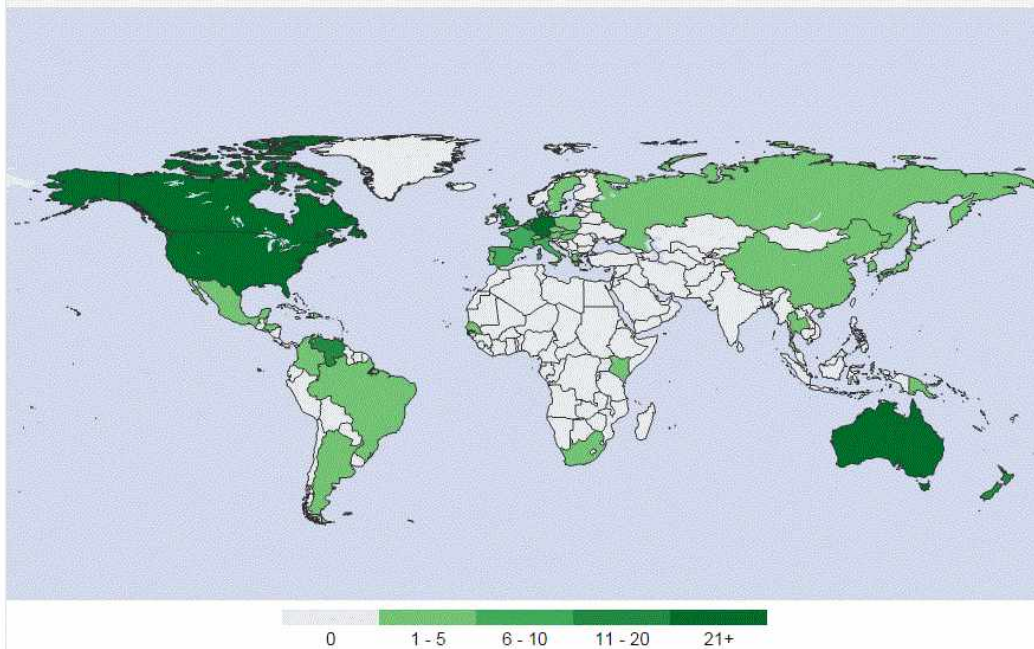
1) 1996년 격월간지 <녹색평론>이 국내에 최초로 레츠를 소개했으며, 1998년 신과학운동을 하는 단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에서 미래화폐란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지역화폐운동을 시작했다. 미래화폐의 경우 현재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박용남, 2014, 생태사회구축을 위한 지역화폐운동,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공청회 자료집)

2) 2014년 9월 15일 수원시민화폐 출범식이 열렸으며, 향후 3개월 간의 시범사용이 시작되었다. 운영 주체는 수원시민화폐국이며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현금을 전자화폐형 시민화폐로 바꾼 뒤 지역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민화폐의 단위는 '수원'으로, 1수원은 1원에 해당한다. (한겨레, 2014.9.15)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의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지역화폐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림 1. 세계 지역화폐 분포 지도



출처 : Complementary Currency Resource Center(www.complementarycurrency.org)

\* 각 국가에 분포하는 지역화폐의 개수를 색깔로 표현한 것, 현재 35개국에서 3000여 개의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화폐의 다양한 이름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또 하나의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sup>3)</sup> 지역통화는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와 같이 다양하다. 다양한 지역통화가 가진 특징과 등장하게 된 배경에 따라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다. (표 1. 참조)

3) 경우에 따라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화폐 연구자들과 운동가들은 지역화폐가 법정화폐와 대립하지 않으며,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중 일부는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하여 가치가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1. 지역화폐의 여러 이름

용어	의미
지역화폐(Local Currency)	지역에 기반하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물리적 지역뿐 아니라 특정 공통요소를 갖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자원순환 활성화 등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기존의 에너지 의존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사회에서 더 생태적인 사회로의 전환/이행을 추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	이자를 붙이지 않고, 스탬프나 인지 등의 방식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통해 감가상각되는(노화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게젤의 자유화폐이론에 기반한 노화하는 돈(Aging Money)과 같은 개념

### 지역화폐의 특징

지역화폐는 각 지역과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하여 등장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이론이나 모델이 존재하기 힘들다.<sup>4)</sup> 하지만 지역화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특징, 달리 말하면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공통의 철학을 뽑아낼 수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의 자유화폐(Free Money) 이론은 지역화폐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다.<sup>5)</sup> 게젤은 모든 상품은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화폐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화폐를 축적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보았다. (표 2. 참조) 때문에 게젤은 일반 상품과 같이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 즉 노화하는 화폐(Aging Money)<sup>6)</sup>를 주장했다.

4) Kennedy & Lietaer, 2004, Regional wahrungen (Susanne, 2014, Regional Complementary Currencies and the EU's Striv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Cohesion에서 재인용)

5) 게젤(1862~1930)은 벨기에 출신 독일인으로, 1890년 남미 부도 위기가 일어날 때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업을 하고 있던 사업가였다. 당시의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화폐에 대해 고민하고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 케인스(Keynes)가 게젤의 화폐 이론을 높이 평가하여 '마르크스보다 게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시대가 올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6) 부패하는 화폐(Rusting Money), 줄어드는 화폐(Shrinking Moeny), 사라지는 화폐(Disappearing Moeny, Melting Moeny), 스탬프화폐(Stamp Money), 중립화폐(Neutral Moeny), 반자본주의화폐(Anti-capitatlist Money) 등으로도 불린다. (Godschalk, 2012, Does Demurrage matter for Complementary Curr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Vol.16)



계절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일반 상품의 평균 감가상각 정도가 1년에 약 5%라는 점을 들어 화폐 역시 같은 속도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주 화폐 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는 식으로 1년이면 5.2%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표 2. 계절의 자유화폐 이론 소개

“화폐는 교환의 도구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의 기능은 상품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 일반적인 상품은 ... 단지 모든 사람들이 화폐를 소유하느냐와 상품을 소유하느냐에 대해 무관심할 때에만 안전하게 교환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화폐가 우리의 생산물에 내재하는 모든 결점에 시달릴 때만이 가능하다. 그 결점은 명확하다. ... 우리의 재화는 썩고, 부패하고, 부서지고, 녹이 쓴다. ... 단지 신문처럼 낡은 것이 되고, 토마토처럼 썩고, 철처럼 녹이 슬고, 에테르처럼 증발하는 화폐만이 토마토, 신문, 철 그리고 에테르의 교환을 위한 도구로서의 테스트를 견뎌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화폐는 구매자나 판매자 양자에 의해 재화보다 선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자유화폐의 목적은 화폐가 향유하는 불공정한 특권을 깨부수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특권은 단지 전통적인 화폐 형태가 모든 다른 상품에 대해 가지는 하나의 엄청난 장점, 즉 그것이 파괴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7)

계절의 주장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화폐에 이자가 붙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sup>8)</sup>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를 저장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이는 화폐의 교환과 유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원의 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촉진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이익추구보다는 필요충족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한다.

원래 화폐는 상품과 상품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기존 화폐의 경우 돈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관계와 협동을 방해하는 현상을 유발한다. 계절의 자유화폐는 기존 화폐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때문에 이후 지역화폐 발전 과정에서 핵심 아이디어로 계승 발전되었고, 지역화폐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7) Gesell, 1958, The Natural Economic Order (한성일, 2013,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지역사회 연구 제21권 제4호에서 재인용)

8)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을 유치료(디머리지 demurrage, 화물의 선적이나 인수가 늦어질 때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지역화폐를 유치료기반화폐 또는 디머리지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화폐의 특징1 :

노화하는 화폐 → 자원의 순환 촉진 → 이익보다 필요에 집중

화폐가 교환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수단인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리성은 화폐의 익명성에서 온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이 이전에 누가 쓰던 돈인지,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화폐의 편리성 덕분에 거리에 상관없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다.

반면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에 비해 편리성이 떨어진다. 법정화폐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과 환전이 가능하지만, 지역화폐는 정해진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환전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노동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곧 화폐와 거래의 익명성이 법정화폐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에 비해 좁은 범위에서 유통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유통하게 되며,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폐가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로서도 역할하게 된다. 이것이 지역화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특징2 :

화폐의 익명성 축소 → 거래에 사회적 관계를 부여 → 공동체 강화

이러한 지역화폐의 특징들로 인해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 주체들이 협동할 수 있게 하여 내생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장점을 정리한 아래의 표로 자세한 설명을 대신한다. (표 3. 참조)



표 3. 지역화폐의 장점

1. 지역화폐는 지역개발을 도울 수 있다. 지역의 농부, 중소기업, 서비스 제공자, 비영리 단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2. 지역화폐는 법정화폐보다 더 빠르게 순환한다. 같은 통화량이라고 해도 이자가 없기 때문에 몇 배 더 많이 순환한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지역화폐는 보완화폐로서 지역 고유의 필요성을 만족시킴으로써 경제적 생산을 더욱 촉진한다.
4. 지역화폐는 경제 주체 간의 새로운 협동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협동을 강화시킨다. 이를 통해 혁신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지역화폐는 지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개발 자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내생적 개발을 강화시킨다.
6. 지역화폐는 참여자들의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화폐는 쥐고 있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 지역화폐는 의료, 교육,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원과 능력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9)

## 지역화폐의 유형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약 3000여개의 지역화폐가 존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3000여 개에 달하는 지역화폐 수만큼 그 형태와 방식도 다양하다. 이를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다음의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 1) 화폐의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고, 발행하는가의 문제이다. 크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레츠와 아워즈(Hours), 타임뱅크(Time Bank)<sup>10)</sup>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생산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교환하거나 화폐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의 노동에 의해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화폐가 창조되는 것이다. 레츠의 경우, 사용자들이 서로 주고 받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

9) Kennedy & Lietaer, 2004, Regionl wahrungen (Istvan Balazs Toth, 2011, The Function of Local Currency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Public Finance Quarterly 2011/1에서 재인용)

10) 타임달러(Time Dollar), 타임머니(Time Money) 등으로도 불린다.



는 가격과 함께 지역화폐의 형태로 표시하여 공유하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교환을 한다. 가격은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절대적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아워즈도 레츠와 비슷하나 유형의 화폐를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 시간의 기초노동을 1아워즈라는 화폐로 발행한다. 아워즈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이타카의 경우 1아워즈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타임뱅크도 레츠나 아워즈와 비슷하나 물품거래는 없고 서비스 제공만 있으며, 모든 사람의 시간 당 노동은 동일하게 측정되며, 자원봉사의 촉진과 복지시스템의 변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1시간 동안 봉사를 하면 1타임달러를 얻게 된다.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킴가우어(Chiemgauer),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Bristol Pound) 사례가 있다. 킴가우어는 동일한 금액의 유로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sup>11)</sup> 브리스톨파운드 역시 동일한 금액의 영국파운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스위스의 비어(Wir)와 프랑스 낭트 지역에서 운영을 준비 중인 소낭트(SoNante)의 경우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만,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공된 신용 한도 내에서 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 2) 실물 화폐의 존재 여부 및 화폐형태에 따라

지역 ‘화폐’ 라고 해서 모두 진짜 돈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화폐의 형태 역시 종이돈,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하다.

우선 레츠의 경우 단위로서 화폐를 사용하기는 하지만<sup>12)</sup> 실제 동전이나 지폐의 형태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단지 회원들의 계좌 안에서만 더해지고, 빼지면서 존재한다. 이를 기록하기 위해 통장을 만든다. 타임뱅크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이타카 아워즈, 브리스톨파운드 등은 지폐를 발행한다. 브리스톨파운드의 경우 지폐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도 가능하다. 비어는 지폐는 발행하지 않고 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결제만 가능하다. 소낭트도 지폐는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만 가능하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 3) 환전, 대출, 적자 한도 여부 등에 따라

11)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에 있어서 소비자와 가맹점에 적용되는 규칙이 조금 다르다.

12) 대전 한발레츠의 경우 화폐 단위가 ‘두루’이다.



다른 통화, 주로 법정화폐와의 환전에 관해서도 각 사례마다 다르다. 환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의 경우 환전을 허용하지 않고 가맹점에게만 환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화폐에서 지역화폐로의 환전과 반대로의 환전에 다른 수수료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타카 아워와 같이 시간에 기반하여 발행된 화폐의 경우 아예 법정화폐로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브리스톨파운드의 경우 소비자 사용자들은 법정화폐로 환전을 할 수 없지만, 가맹점들은 가능하다.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에 비해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운영방식이다. 독일의 킴가우어는 소비자가 처음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할 때는 동일한 가치로 환전하지만, 나중에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는 5%를 할인하여 환전한다. 즉 100킴가우어를 95유로로 바꿔준다.

환전을 허용할 경우 지역화폐 사용 빈도가 떨어질 수 있고, 환전을 불허할 경우 초기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각 지역의 상황과 화폐 도입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전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지역화폐와 함께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의 비어가 대표적인데, 원래부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로 대출하고, 지역화폐로 갚는다. 프랑스의 파리, 릴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솔(Sol)의 경우도 지역화폐와 함께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레츠와 타임뱅크의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여 화폐를 얻는 방식이기에 대출이 아닌 적자한도의 개념이 존재한다. 즉, 계속해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화폐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 레츠의 경우 적자 한도가 정해져있다. 공동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무임승차자를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타임뱅크의 경우 봉사활동과 복지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자 한도를 두지 않는다.

#### 4) 지향점에 따라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독일 킴가우어, 프랑스 소낭트 등과 같이 법정화폐와 교환되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두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화폐들이 추구





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략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표 4. 주요 지역화폐 비교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비어	김가우어	브리스톨 파운드	소낭트
가치평가 기준	시간	시간	시간	신용발행 법정화폐 (스위스프랑)	법정화폐 (유로화)	법정화폐 (영국파운드)	신용발행 법정화폐 (유로화)
실물화폐 존재여부	X	지폐 발행	X	X	지폐 발행	지폐 발행	X
화폐 형태	계좌 거래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신용카드
법정화폐로환전	X	X	X	가능	가능	가맹점만 가능	X
기타	적자 한도 존재		적자 한도 없음	대출 가능			
지향점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 더 많은 지역화폐를 기대하며

영국 지역화폐에 대해 연구한 피터 노스(Peter North)는 지역화폐의 목적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원하는 목적에 맞는 형태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노스는 여러 지역화폐를 비교하여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음의 네 가지를 지역화폐 고안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sup>13)</sup>

- ① 화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 ③ 계좌 관리의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
- ④ 화폐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지역화폐의 다양한 사례들이 더 많이 연구되어, 각 지역에 맞는 더 다양한 지역화폐가 탄생하면서도 지역화폐가 성공하는 공통의 요인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3) North, 2000, Complementary currencies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roblems and how they might be overcome.,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9월 2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강세진,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공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 등교,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	이은경
주거	9/16	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세진
주거	9/22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강세진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이수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